

“이태원, 인파 관리 이뤄지지 않았다”

외신들, 사고 예방조치 부족 지적 전문가들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경찰 배치 등 예방·해산 조치 미흡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뒤 맞이한 첫 헬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당국의 충분한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국의 안전·재난관리 문제 전문가들은 외신을 통해 당국이 인파 규모 모니터링 실패로 인한 현장 대응 조치 미흡 등을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당국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첫 헬러윈을 기념하기 위해 이태원에 몰려든 군중 수를 어떻게 규제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중 안전 문제 전문가인 폴 워트하이머는 WSJ에 “코로나19 규제에 의해 억눌린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국이 이태원에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뒤 “법 집행기관이 클럽 경비원처럼 골목길에 대한 접근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의 존제이 범죄학 컬리지 강사인 브라 이언 히긴스는 뉴욕타임스(NYT)에 “경찰과 공공 안전 당국자들이 쏟아져나온 규모의 군중에 대한 대응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며 “충분한 현장 인력과 계획이 없었던 것은 꽤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규모보다 더 많은 인파가 그 공간에 들어갔다. 그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사람이 일단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들을 빨리 해산시킬 계획 또한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줄리엣 카이엔 미 재난관리 전문가는 CNN에 “당국이 토요일 밤 이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무엇이 비극을 초래했는지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당시 영상은 짙은 거리, 골목길이 인파들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세이프티’의 스티브 앨런 설립자는 WP에 당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태원 거리를 찍은 영상들을 검토한 뒤 “인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WP는 또 이태원 관할 구청이 헬러윈 안전대책으로 코로나 예방, 식당안전 점검, 마약 단속 등의 감독에만 초점을 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이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모임을 규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에이머스 교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위험하게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감지·방지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참사 이틀 전인 27일 경찰이 헬러윈 경비를 위해 이태원에 2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거론, 이번 참사가 안전불감증 및 대비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국내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상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대규모 군중 집결에 대해 보다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인터뷰를 소개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 하계올림픽 경비 책임자이자 경시총감을 역임한 요네무라 토시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혼잡한 곳의 경비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사전에 좁은 장소를 특정하고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는지 정보를 모아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브라질 대선 ‘좌파 대부’ 룰라 당선
올루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루이스 아시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가운데)이 30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러, 곡물 수출 협정 중단 선언...식량 가격 다시 치솟나

미국 등 서방, 대응책 모색 분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결정 번복을 촉구하면서 분주히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협정 협정 및 우크라이나의 곡물·비료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의 조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별도 게시글에서 “특해 곡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곡물·비료의 주된 수출 루트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협정은 특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한 ‘특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이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터키)의 중재를 받아들여 내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러시아는 전날 일방적으로 발을 빼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공에서 이행돼 온 농산물 수출에 관한 협정에 더는 참

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해를 지나는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협정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다시 막히게 된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다시 끊기면 세계 식량 위기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특해함대를 공격한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식량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서방은 의심한다.

특히 이번 조처는 겨울 안전세에 접어든 국제 식량 가격을 다시 치솟게 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값 급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전 국왕 100주년 생일행사 참가하는 수도승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국가 독립의 아버지 100주년’ 기념행사에 불교 수도승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행사는 캄보디아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로돔 시아누크 전 국왕(1922~2012)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홍콩은 경찰이 헬러윈 인파 통제했다

란콰이퐁 일방통행·비상로 확보

30일 밤 홍콩 최대 유흥가인 란콰이퐁에는 매년 이맘때면 출몰하는 마녀, 천사, 악마, 전기톱 살인자, 유령, 마블 슈퍼히어로 등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란콰이퐁을 람모(35) 씨는 “서울의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첼(31) 씨도 서울에서 벌어진 비극에도 헬러윈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며 “홍콩 경찰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조직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잘 통제된다고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밤 한국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헬러윈 참사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렇듯 홍콩 주민들의 헬러윈 축제 분위기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홍콩 경찰은 헬러윈을 맞아 란콰이퐁 지역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곳곳에 일방통행 안내 표시와 함께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로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서울 참사 이후 취한 특별 조치가 아니라 예년과 유사한 평소 행사 통제 매뉴얼”이라며 “우리는 수년간 란콰이퐁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대응해 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밤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자 경찰들은 란콰이퐁으로 향하는 우회로를 안내하고, 란콰이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원을 15~20분 간격으로 통제했다.

또한 여러 차레 방송을 통해 란콰이퐁으로 모여 들지 말고 인근 도로를 이용해 떠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홍콩 경찰의 조직적 대처는 29년 전 앞서 사 사고의 교훈에서 비롯한다. 1993년 새해 연야를 맞아 란콰이퐁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연사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62명이 부상했다.

란콰이퐁 지역은 구불구불한 좁은 경사로와 많은 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태원 압사 사고도 좁은 경사로서에서 벌어졌다.

/연합뉴스

중국 폭스콘 노동자 코로나 봉쇄 탈출 러시

정저우·광저우시 코로나 비상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특히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허난성 정저우시와 광둥성 광저우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직원이 약 30만명인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통제 안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탈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구 1000만명의 정저우는 지난 28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모든 공공장소와 주거 건물에 대한 소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정저우는 이달 중순부터 지역에 따라 전면

외출 금지 혹은 주거 단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고 비밀수 사업장은 폐쇄했다.

SCMP는 “이같은 대규모 소독작업은 지난 4~5월 봉쇄된 상하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이후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4월 상하이 보건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소독약을 사람에게 직접 뿌리지 말라. 야외 공기를 살균하지 말라. 녹지, 도로, 벽 등 외부 환경에 대규모 살균 작업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허난성 당국은 28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7명이며 모두 정저우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 중 일부는 세계 최대 아이콩 생산기지인 대만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